

어머니와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Communications and Family Cohesion & Adaptability
Between Mother and Adolescent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박은주
조교수 김경신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Univ.

Doctoral Course : Park, Eun Ju

Assistant Prof. : Kim, Kyeong Shin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out general trends of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patterns and to analyze communication variables which influence o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The subjects were 386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mothers living in Kwang-ju. PACI and FACES III were used to measure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patterns and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 Mothers highly perceived open communication pattern with adolescents, but adolescents perceived close communication more. Communication patterns,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cording to communication variables as communication time and satisfactio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according to communication patterns. Especially, open communication pattern between mothers and adolescents was the most important in order to increas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I. 서 론

오늘날 사회의 급속한 변화 때문에 가족의 고유기능 중 많은 부분이 사회로 옮겨가고 있으며 가족관계의 유대가 약화되어 가고 있어 가족내에서도 다양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족원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가족원간에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기회증진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와 자녀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상호작용적 과정인 가족의사소통은 가족원간에 기능적이고 원만한 관계가 성립되도록 도와줄 수 있다. 특히 가족내의 인간관계 중 가장 기본적이고 영구적인 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연대성과 안정성을 계속 유지하고, 기존의 부모와 자녀관계의 변화에 따른 갈등과 문제를 축소하고 해결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또한 가족체계 내에서 가족원 상호간에 지니는 심리적·정서적 유대감인 응집성과 가족원 개인이 경험하는 자율성인 적응성은 문제에 대한 빠른 인식과 해결능력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의사소통 형태와 내용에 따라 가족기능 수행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원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Galvin과 Brommel, 1986).

따라서 가족원은 각자의 부모와 자녀의 상황에 맞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유형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고,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개인의 발달측면과 부모자녀 관계측면에서 심리적 변화를 많이 경험하는 시기이고 부모자녀간의 대화가 점점 축소하며 세대간의 의견 차이도 심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가족 모두의 화합과 적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장호선, 1987; 김진희, 1989; 김윤희, 1990; 민하영, 1991; 권혜진, 1993; 조은경, 1993; 차은정, 1993)이 주로 부모자녀간의 의

사소통을 탐색함에 있어 의사소통유형에 대한 세분화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또한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그 상호관계를 분석한 경우가 많지 않으며, 특히 이들 부모자녀간을 쌍으로 직접적인 조사대상으로 포함한 경우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중 자녀양육에 일차적 책임자로 인지되고 있는 어머니 및 청소년자녀를 대상으로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유형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차이를 탐색함으로써 바람직한 의사소통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둔다.

〈연구문제 1〉 의사소통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일반적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변인, 의사소통 변인별로 의사소통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은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은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

부모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유형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대화행동과 어머니의 반응을 관련지어 쌍방개방형·쌍방차단형·자녀차단-어머니개방형·자녀개방-어머니차단형·쌍방차단형으로 분류한 Beaubien(1970)의 의사소통유형을 적용한 결과, 이정우·김규원(1989)은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유형 중 쌍방개방형(40.3%)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쌍방차단형(34.5%), 자녀차단-어머니개방형(13.1%), 자녀개방-어머니차단형(12.2%) 순으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최선남(1990)도 쌍방개방형(41.1%)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쌍방차단형(29.1%), 자녀차단-어머니개방형(18.6%), 자녀개방-어머니차단형(11.2%) 순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어머니와 청소년자녀가 상호개방적

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으나 상호차단된 경우의 비율도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Circumplex Model에 기초하여 개방형 의사소통·문제형 의사소통으로 분류한 Barnes와 Olson(1985)의 의사소통유형을 적용한 결과, 조은경(1993)은 청소년자녀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개방성이 높고 문제성이 낮은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였고, 김윤희(1990)는 의사소통 반응에 대한 지각불일치 비교에서 부모가 지각하는 의사소통과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차은정(1993)도 부모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많이하고, 청소년자녀는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한다고 지각하여 부모와 청소년자녀 간에는 지각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가지 유형 분류방법을 기초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유형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유형화하지 않은 일반적인 연구결과들로서 부모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 정도를 살펴보면, 이석경(1988)이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대개 20-60분이라고 하였고, 옥선화(1985)는 부모와 청소년자녀간의 대화 방해요소가 대화시간 부족이라고 하였으며, 김명자(1991)는 의사소통의 양과 여기에 참여하는 개인의 만족감은 곡선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윤정명(1983)은 청소년기 자녀들이 부모와의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하였고, 오연옥(1988)은 부모보다 친구와 더 이야기한다고 하였으며, 이향련(1986)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부모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유형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연령이 적을수록(장호선, 1987; 최선남, 1990),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어머니의 직업이 없을수록(김진희, 1989)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개방성이 증가한다(김순옥, 1990)고 하였다. 그리고 아들보다 딸이,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조은경, 1993)고 하였으며, 자녀가 적을수록(김진희, 1989), 청소년의 경우, 가족형태가 핵가족인 경우(권혜진, 1993)에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고 하였다. 또한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대화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낄수록, 서로 대화하는 욕구가 강할수록(장호선, 1987), 가정분위기가 화목할수록, 어머니와의 대화에 만족하는 집단일수록(최선남, 1990)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토대로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변인별 차이를 보고자 한다.

2.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 가족기능과의 관계가 곡선적 혹은 직선적이라는 가설 하에 진행되고 있고, 또 이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곡선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족기능 또는 역동성을 응집성과 적응성 차원으로 통합한 Olson, Russell과 Sprenkle(1979, 1983)은 가족체계가 균형적일수록 건전한 가족이고, 이러한 체계는 가족과 개인에게 기능적이라고 하였으며, Bell(1982)은 정상가족이 비행청소년 가족에 비해 균형을 이루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였고, Clake(1984)도 정상가족이 정신분열증·신경과민 등의 과거에 가족치료를 받았던 가족보다 매우 분명하게 균형적인 수준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순덕(1987)은 정상가족보다 임상가족이 자녀와 어머니 모두의 반응에서 극단수준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전귀연(1993)은 가족 응집성 수준에서 연결된 가족이 부모자녀 관계에서 문제의 정도가 가장 적게 나타나며, 가족 적응성 수준에서 균형가족이 극단가족에 비해 가장 건전한 부모자녀 관계를 확립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직선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Beavers와 Voller(1983)는 적응성이 높을수록 가족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기능한다고 하였고, Barnes와 Olson(1985)은 일반가정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을수록 가족이 더 효율적으로 기능한다고 하였으며, 홍성애(1988)는 정상가족일수록 응집성 및 적응성에서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Miller, Epstein, Bishop과 Keitner(1985)은 건 강한 가족인가, 병리적인 가족인가 하는 것과 가족

의 기능과는 곡선적이기보다는 직선적이라고 하였고, 박금희(1986)는 결속력 및 적응성 각각의 차원에 대한 청소년의 불안수준과의 상관관계(직선관계 가설)에 비하여, 가족체계의 균형도와 청소년의 불안수준과의 상관관계(곡선관계 가설)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하였다.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전문·관리직에 종사할수록(김진희, 1989), 아버지가 행정관리직에 종사할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이금, 199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홍성애, 1988)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이금, 1993),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김진희, 1989; 이금, 1993), 형제수가 많을수록(김진희, 1993)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토대로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에 있어서 변인별 차이를 보고자 한다.

3. 부모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가족내 가족원들의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매개체 중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장호선, 1987)은 가족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가족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를 유지하며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므로(조은경, 1987), 가족내에서의 의사소통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먼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 가족기능과의 관계가 곡선적임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Olson과 그의 동료들(1979)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균형적으로 가족체계를 움직이게 하고, 이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려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Anderson(1986)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에 균형을 이루는 가족이 지나치게 응집된 가족보다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Galvin과 Brommel(1986)은 가족의 응집이나 적응수준이 높거나 낮을때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난다고 하였으며, 민혜영

(1990)은 균형을 이루는 가족이 극단수준의 가족에 비해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더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 가족기능과의 관계가 직선적임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Barnes와 Olson(1985)은 부모와 청소년의 의사소통이 잘 유지되고 있는 가족들의 경우 응집성·적응성·가족의 만족수준이 모두 높다고 하였고, 의사소통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역기능적인 수준에서 기능적인 수준으로의 이동을 쉽게 해 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진희(1989)는 부모와 자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모두 높은 집단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였고, 김윤희(1990)는 부모와 자녀의 개방형 의사소통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점수가 높되, 특히 적응성 점수보다 응집성의 점수가 더욱 높다고 하였으며, 민하영(1991)은 비행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응집 및 적응은 부모 모두와의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부와 모 각각의 의사소통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견해가 다양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차이를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청소년자녀 각각 의사소통유형,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의사소통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1) 의사소통유형

가족내 의사소통 및 세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기 위하여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기초로 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척도를 구성하였

다.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유형 질문지는 양방개방형, 모차단-자녀개방형, 양방차단형, 모개방-자녀차단형의 하위척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하위 척도별로 10문항씩 총4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형 5점 척도로, Cronbach's α 는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유형별로 .71에서 .79사이에 분포되었다.

년자녀 각각 가족 응집성은 .78과 .74였으며, 적응성은 .72와 .71로 나타났다.

3) 의사소통 변인

의사소통 변인으로 하루평균 대화시간, 대화시간 인지도, 대화시간 부족이유, 하루 중 주대화시간, 대화하고 싶은 경우, 주대화대상자, 대화정도 인지도, 대화만족도 등을 선택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N=386)

어머니의 변인	집 단	f (%)	자녀의 변인	집 단	f (%)
연 령	34 - 40 세	102 (26.4)	성 별	남	161 (41.7)
	41 - 50 세	258 (66.8)		여	225 (58.3)
	51 - 58 세	16 (4.2)	연 령	14 - 15 세	98 (25.4)
	무 응 답	10 (2.6)		16 세	194 (50.3)
		17 - 18 세		89 (23.0)	
학 력	국졸이하	41 (10.6)	무 응 답	5 (1.3)	
	중 졸	105 (27.2)	형 제 수	1 - 2 명	147 (38.1)
	고 졸	185 (47.9)		3 명	159 (41.2)
	대졸이상	53 (13.8)		4 명 이상	80 (20.7)
무 응 답	2 (0.5)	출생순위	만 이	139 (36.0)	
직 업	유		125 (32.4)	중 간	124 (32.1)
	무		260 (67.3)	막 내	123 (31.9)
	무 응 답	1 (0.3)	가족형태	핵 가 족	317 (82.1)
월 평 균 소 득	100만원 이하	150 (38.9)		확 대 가 족	53 (13.7)
	101 - 150만원	144 (37.3)		기 타	15 (3.9)
	151만원 이상	86 (22.3)		무 응 답	1 (0.3)
	무 응 답	6 (1.5)	종 교	유	237 (61.4)
종 교	유	297 (76.9)		무	148 (38.3)
	무	86 (22.3)		무 응 답	1 (0.3)
	무 응 답	3 (0.8)			

2)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Olson, Portner와 Lavee(1985)에 의해 제작된 FACES III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를 번역·수정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은 각각 10문항씩 총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형 5점 척도로, Cronbach's α 는 어머니와 청소년

4)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연령, 학력, 직업 유무, 월평균소득, 종교를 선택하였고, 자녀는 성별, 연령, 형제수, 출생순위, 가족형태, 종교를 선택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광주광역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동일가족원인 어머니와 자녀를 한쌍으로 조사하였으며, 이 중에서 완전한 자료인 총 772명 386쌍을 통계처리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χ^2 -test, F-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통계처리는 PC를 이용한 SAS 프로그램을 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보면 <표 1>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경우 41-50세 연령층이 66.8%로 가장 많았고, 고졸의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부직인 경우가 67.3%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고, 76.9%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는 여학생이 58.3%이었고, 연령은 16세가 50.3%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수는 3명일 때가 41.2%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출생순위는 맏이인 경우가 36.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61.4%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형태는 대부분 핵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의사소통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일반적 경향

1) 의사소통유형의 일반적 경향 <표 2>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지각하는 네개의 하위척도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하위유형을 조사대상자의 의사소통유형으로 결정하였고, 양방개방형을 제외한 모차단-자녀개방형·양방차단형·모개방-자녀차단형은 문제가 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2) 의사소통유형의 분포

구분	의사소통유형	빈도	%	χ^2
모	양방개방형	228	59.1	***
	모차단-자녀개방형	24	6.2	
	양방차단형	80	20.7	
	모개방-자녀차단형	54	14.0	
사 녀	양방개방형	136	35.2	54.45
	모차단-자녀개방형	1	4.4	
	양방차단형	140	36.3	
	모개방-자녀차단형	93	24.1	

어머니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유형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와 청소년자녀간 의사소통에 있어 어머니는 양방개방형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에 청소년자녀는 양방차단형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유형 모두 양방개방형과 양방차단형이 모차단-자녀개방형과 모개방-자녀차단형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쌍방개방형과 쌍방차단형이 자녀차단-어머니개방형과 자녀개방-어머니차단형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이정우·김규원(1989)과 최선남의 연구결과(1990)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청소년자녀 각각의 의사소통유형을 보면, 청소년자녀보다 어머니가 양방개방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어머니와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유형이 일치되는 정도는 총 46.9%로서, 양방개방형 27.7%, 모차단-자녀개방형 0.5%, 양방차단형 11.9%, 모개방-자녀차단형 6.7%로 나타났다.

2)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일반적 경향 <표 3>

어머니·청소년자녀 모두의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중간점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어머니·청소년자녀 모두 응집성이 적응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머니보다 청소년자녀의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어머니와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이 다소 안정적이긴 하나, 청소년자녀의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어머니에 비해 낮으므로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가족기능의 강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일반적 경향

가족 기능	점수 분포	모		자녀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응집성	10-50	35.07	5.44	32.01	6.62	8.61***
적응성	10-50	33.68	4.93	31.04	5.98	8.21***

2. 사회인구학적 변인, 의사소통 변인에 따른 의사소통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의사소통 변인에 따른 의사소통유형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은 모든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청소년자녀의 경우에만 성별과 형제수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딸의 경우 양방개방형이 가장 많은 반면 아들의 경우 양방차단형이 가장 많고, 형제수가 1-2명일 때 양방개방형이 가장 많은 반면 3명 이상일 때는 양방차단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아들보다는 딸이 더 개방적이라는 김순옥의 연구결과(1990)와 일치하고, 자녀가 적을수록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김진희의 연구결과(1989)와 일치하고 있다.

의사소통 변인에서는 어머니에게 있어 하루평균 대화시간, 대화시간 인지도, 대화시간 부족이유, 대화하고 싶은 경우, 대화정도 인지도, 대화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자녀의 경우는 하루평균 대화시간, 대화시간 인지도, 하루 중 주대화시간, 주대화대상자, 대화정도 인지도, 대화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대화시간이 많고, 대화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 대화정도 인지도와 대화만족도가 높은 경우 양방개방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부모와 청소년자녀간의 대화 장애요소가 대화시간 부족이라고 밝힌 옥

선희의 연구결과(1985)와 일치하고 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 의사소통 변인에 따른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응집성은 모든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적응성은 종교 유무에서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종교가 있는 경우 적응성이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자녀의 응집성은 성별과 출생순위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적응성은 성별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딸일 경우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고, 첫째자녀일 경우 응집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성별에 따른 적응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한다는 김진희의 연구결과(1989)와 일치하고 있다.

의사소통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은 하루평균 대화시간, 대화시간 부족이유, 주대화대상자, 대화정도 인지도, 대화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응집성은 대화시간 인지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자녀의 응집성 및 적응성은 하루평균 대화시간, 대화시간 인지도, 대화시간 부족이유, 주대화대상자, 대화정도 인지도, 대화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대화시간이 많고, 대화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낄수록, 대화정도 인지도와 대화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차이는 〈표 6〉과 같다.

어머니의 경우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에서 모두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청소년자녀도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어머니·청소년자녀 모두 양방개방형일수록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어머니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모두 높은 유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 의사소통 변인에 따른 의사소통유형

구분	변인	집단	빈도	의사소통유형				χ ²
				양방개방형	사녀개방모차단형	양방자단형	사녀자단모개방형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자녀	성별	남	161	44(27.3)	9(5.6)	56(34.8)	52(32.3)	**
		여	225	92(40.9)	8(3.6)	84(37.3)	41(18.2)	13.67
	형제수	1-2명	147	60(40.8)	9(6.1)	49(33.4)	29(19.7)	*
		3명 4명 이상	159 80	54(34.0) 22(27.5)	2(1.3) 6(7.5)	55(34.6) 36(45.0)	48(30.1) 16(20.0)	15.36
모	하루평균 대화시간	30분 이하	152	70(46.1)	11(7.2)	44(28.9)	27(17.8)	**
		30분-1시간 미만	178	114(64.0)	11(6.2)	30(16.9)	23(12.9)	23.40
		1시간 이상	55	44(80.0)	1(1.8)	6(10.9)	4(7.3)	
	대화시간 인지도	충분하다	84	64(76.2)	4(4.8)	9(10.7)	7(8.3)	*
		보통이다	153	89(58.2)	9(5.9)	36(23.5)	19(12.4)	16.29
		충분하지않다	148	75(50.7)	10(6.8)	35(23.6)	28(18.9)	
	대화시간 부족이유 (N=273)	사녀가대화하기싫어함	23	6(26.1)	4(17.4)	3(13.0)	10(43.5)	***
		함께 있는 시간 부족	239	149(62.4)	13(5.4)	45(18.8)	32(13.4)	35.97
		서로대화가통하지않음	11	0(0.0)	2(18.2)	5(45.5)	4(36.3)	
		사녀기분이나빠보일때	130	77(59.2)	6(4.6)	27(20.8)	20(15.4)	**
	대화하고 싶은 경우	분쟁이 생겼을 때	65	31(47.7)	10(15.4)	11(16.9)	13(20.0)	**
		한가할 때	84	55(65.5)	3(3.6)	20(23.8)	6(7.1)	29.06
사녀기분이 좋아보일때		71	48(67.6)	2(2.8)	14(19.7)	7(9.9)		
내 기분이 좋을 때		11	4(28.6)	2(14.3)	3(21.4)	5(35.7)		
대화정도 인지도	낮은 집단 (8-20)	66	25(37.9)	3(4.6)	27(40.9)	11(16.7)	**	
	중간 집단 (21-27)	229	140(61.1)	16(7.0)	39(17.0)	34(14.9)	24.65	
	높은 집단 (28-40)	91	63(69.2)	5(5.5)	14(15.4)	9(9.9)		
대화만족도	낮은 집단 (8-20)	66	22(33.3)	5(7.6)	24(36.4)	15(22.7)	**	
	중간 집단 (21-29)	271	168(62.0)	15(5.5)	52(19.2)	36(13.3)	29.02	
	높은 집단 (30-40)	49	38(77.6)	4(8.2)	4(8.2)	3(6.0)		
자녀	하루평균 대화시간	30분 미만	187	42(22.4)	9(4.8)	68(36.4)	68(36.4)	***
		30분-1시간 미만	152	65(42.8)	8(5.2)	57(37.5)	22(14.5)	46.80
		1시간 이상	47	29(61.7)	0(0.0)	15(31.9)	3(6.4)	
	대화시간 인지도	충분하다	90	57(63.4)	1(1.1)	22(24.4)	10(11.1)	***
		보통이다	149	15(30.2)	8(5.4)	58(38.9)	38(25.5)	43.85
		충분하지않다	147	34(23.2)	8(5.4)	60(40.8)	45(30.6)	
	하루중 대화시간	식사시간	140	36(25.7)	9(6.4)	51(36.5)	44(31.4)	**
		휴식시간	190	82(43.1)	7(3.7)	68(35.8)	33(17.4)	17.70
		감동기질	18	9(50.0)	0(0.0)	4(22.2)	5(27.8)	
	주 대화 대상자	어머니	67	43(64.2)	3(4.5)	18(26.8)	3(4.5)	***
		아버지	23	7(30.4)	0(0.0)	11(47.8)	5(21.8)	57.28
		모두 비슷한 수준	72	35(48.6)	1(1.4)	23(31.9)	13(18.1)	
친구		206	43(20.9)	12(5.8)	85(41.3)	66(32.0)		
대화정도 인지도	낮은 집단 (8-18)	76	6(7.9)	6(7.9)	36(47.4)	28(36.8)	***	
	중간 집단 (19-25)	235	86(36.6)	9(3.8)	84(35.8)	56(23.8)	44.92	
	높은 집단 (26-40)	75	44(58.6)	2(2.7)	0(26.7)	9(12.0)		
대화만족도	낮은 집단 (8-17)	71	2(2.8)	5(7.1)	37(52.1)	27(38.0)	***	
	중간 집단 (18-28)	266	98(36.8)	10(3.8)	97(36.5)	61(22.9)	65.60	
	높은 집단 (29-40)	49	36(73.5)	2(4.0)	6(12.3)	5(10.2)		

* P < .05 ** P < .01 *** P < .001
유의차가 나타난 변인만을 제시한 것임.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 의사소통 변인에 따른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구분	변인	집단	빈도	응집성			적응성		
				평균	F값	Duncan's Test	평균	F값	Duncan's Test
모	종교	유	297	29.48		A	34.68	**	A
		무	86	29.66	0.05	A	32.73	7.86	B
자녀	성별	남	161	30.53	***	B	29.72	***	B
		여	225	33.08	14.38	A	31.99	13.89	A
	출생순위	만	139	32.88	*	A	31.45		A
		중	124	30.74	3.66	B	30.82	0.51	A
	막	123	32.31		BA	30.80		A	
모	하루평균 대화시간	30분 미만	152	32.84	***	C	32.59	***	B
		30분-1시간 미만	178	36.07	26.74	B	33.95	9.47	B
		1시간 이상	55	37.98		A	35.80		A
	대화시간 인지도	충분하다	84	36.93	***	A	34.67		A
		보통이다	153	35.48	11.39	B	33.73	2.90	BA
		충분하지않다	148	33.59		C	33.05		B
	대화시간 부족이유 (N=273)	자녀가대화하기싫어함	23	30.74	***	B	31.35	**	BA
		함께 있는 시간 부족	239	35.18	9.60	A	33.87	4.86	A
		서로대화가통하지않음	11	31.18		B	30.46		B
	주대화대상자	자녀	59	36.75		A	35.19		A
		남편	120	35.39	**	A	34.03	*	BA
		모두 비슷한 수준	144	35.06	4.57	A	33.30	3.70	BC
		친구	48	32.92		B	32.25		C
	대화정도 인지도	낮은 집단 (8-20)	66	31.58	***	C	31.96	***	C
중간 집단 (21-27)		229	34.88	32.30	B	33.67	13.10	B	
높은 집단 (28-40)		91	38.09		A	35.73		A	
대화만족도	낮은 집단 (8-20)	66	31.32	***	C	31.39	***	C	
	중간 집단 (21-29)	271	35.42	27.55	B	33.90	11.48	B	
	높은 집단 (30-40)	49	38.16		A	35.55		A	
자녀	하루평균 대화시간	30분 미만	187	29.80	***	B	29.63	***	B
		30분-1시간 미만	152	34.01	22.54	A	32.55	10.88	A
		1시간 이상	47	34.34		A	31.55		A
	대화시간 인지도	충분하다	90	35.02	***	A	32.70	**	A
		보통이다	149	31.69	14.25	B	31.13	6.15	B
		충분하지않다	147	30.50		B	29.93		B
	대화시간 부족이유 (N=214)	함께 있는 시간 부족	157	32.52	***	A	31.86	***	A
		서로대화가통하지않음	34	27.47	13.30	B	27.59	12.67	B
		내가 대화하기 싫어함	23	27.30		B	27.13		B
	주대화대상자	어머니	67	34.43		A	32.02		BA
		아버지	23	33.96	***	A	32.30	***	BA
		모두 비슷한 수준	72	34.26	11.49	A	33.11	6.42	A
		친구	206	30.40		B	29.90		B
	대화정도 인지도	낮은 집단 (8-18)	76	28.41	***	C	29.08	***	B
중간 집단 (19-25)		235	31.85	30.10	B	30.72	14.71	B	
높은 집단 (26-40)		75	36.17		A	34.03		A	
대화만족도	낮은 집단 (8-17)	71	26.83	***	C	28.24	***	C	
	중간 집단 (18-28)	266	32.54	42.01	B	31.12	18.20	B	
	높은 집단 (29-40)	49	36.65		A	34.65		A	

* P < .05 * P < .01 *** P < .001
유의차가 나타난 변인만을 제시한 것임.

형에서 이루어진다는 김진희의 연구결과(1989)와 일치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의 개방형 의사소통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점수가 높다고 한 김윤희의 연구결과(1990)와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유형 중 양방개방형을 개방형 의사소통으로 보고, 양방차단형·모차단-자녀개방형·모개방-자녀차단형을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본다면, 전반적으로 양방개방형을 제외한 양방차단형·모차단-자녀개방형·모개방-자녀차단형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유형의 실태와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의 차이를 탐색하여,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유형을 파악하는데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유형의 일반적 경향에서 어머니는 양방개방형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에 청소년자녀는 양방차단형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어머니·청소년자녀 모두 양방개방형과 양방차단형이 모차단-자녀개방형과 모개방-자녀차단형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일반적 경향에서 어머니·청소년자녀 모두 중간수준 이상으로 지각하였고, 자녀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을 더 낮게 지각하였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은 모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유형은 성별과 형제수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의사소통 변인 중 하루평균 대화시간, 대화시간 인지도, 대화정도 인지도, 대화만족도에서 어머니·청소년자녀 모두 차이가 나타났다. 또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 어머니의 응집성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적응성은 종교 유무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청소년자녀의 응집성은 성별과 출생순위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적응성은 성별에서 차이가 나

타났다. 그리고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은 의사소통 변인 중 하루평균 대화시간, 대화시간 부족이유, 주대화대상자, 대화정도 인지도, 대화만족도에서 어머니·청소년자녀 모두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청소년자녀 모두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청소년자녀 모두 양방개방형인 의사소통유형에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어머니와 청소년자녀간 의사소통에 있어 어머니는 양방개방형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청소년자녀는 양방차단형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어머니의 의사소통 방식이 청소년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기술에 관한 교육이 사회교육 매체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에서 공통으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은 충분한 대화시간, 대화만족, 개방적 의사소통유형 등이므로, 변화하는 가족의 진정한 기능회복을 위해서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대화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개인, 가족 혹은 사회적 측면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의사소통유형에 관한 기존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연구자가 새로운 척도를 구성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척도의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과 둘째,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이것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추후에는 아버지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측면에서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모두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

〈표 6〉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구분	의사소통유형	빈도	응집성			적응성		
			평균	F값	Duncan's Test	평균	F값	Duncan's Test
모	양방개방형	228	36.73		A	34.44		A
	모차단-자녀개방형	24	32.42	***	CB	31.79	**	B
	양방차단형	80	33.68	22.72	B	33.19	5.44	BA
	모개방-자녀차단형	54	31.30		C	32.04		B
자녀	양방개방형	136	36.10		A	33.68		A
	모차단-자녀개방형	17	29.00	***	B	30.12	***	B
	양방차단형	140	30.35	34.52	B	29.96	15.80	B
	모개방-자녀차단형	93	29.10		B	29.98		B

** P < .01 *** P < .001

고, 부모자녀 관계에서 초기의 영향력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청소년 이전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권혜진(1993). 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 2) 김명자(1991). 가족학 연구의 이론적 접근-미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연구회(편), 교문사.
- 3) 김순옥(1990). 10대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개방성과 그 귀인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김윤희(1990). 부부관계·부모-자녀의사소통·가족기능과 청소년자녀 비행과의 관계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5)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 관계.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6)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7) 민혜영(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의

사소통.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8) 박금희(1986).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화합도와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청소년의 불안수준간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9) 오연옥(1988). 사춘기 자녀와 어머니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중3학생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옥선화(1985). 자녀 문제와 대책: 청소년과 부모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박금순(편),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총본부.
- 11) 유순덕(1987).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한국의 임상가족과 일반가족의 비교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12) 윤정명(1983).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활동에 관한 연구-중학생을 중심으로-.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이금(1993).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만족에 관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이석경(1988). 청년기 자녀와 아버지와의 대화에 관한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이정우·김규원(198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유형 및 만족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3), 147-159.
- 16) 이향련(1986). 사춘기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할

- 동에 관한 연구. 경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장호선(1987).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 청소년기 자녀를 중심으로 -. 성심여대 석사학위논문.
 - 18) 전귀연(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부모-청소년기 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3), 157-173.
 - 19) 조은경(1987). 가족의 커뮤니케이션과 권력에 관한 기능적 이론의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127-144.
 - 20) 조은경(1993). 부모·청소년자녀간의 대인거리·심리적거리·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21) 차은정(1993). 청소년 스트레스와 가족체계 및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 울산시의 중학생을 중심으로 -. 울산대 석사학위논문.
 - 22) 최선남(1990). 청소년의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유형과 갈등표출방법에 관한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 23) 홍성애(1988). 가정환경과 가족체제 상호작용 유형이 청년기의 자아정체감형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24) Anderson, S. A.(1986). Cohesion, Adaptability and Communication : A Test of an Olson Circumplex Model Hypothesis. *Family Relation* 35, 289-293.
 - 25) Barnes, L. H. & Olson, D. 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26)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27) Beaubien, C. O.(1970). *Adolescent-Parent Communication Styles*. The Pennsylvania State Univ. Ph.D.
 - 28) Beavers, W. R. & Voller, M. N.(1983).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the Beavers Systems Model. *Family Process* 22, 85-98.
 - 29) Bell, R. Q.(1982).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in Families with Runaway : Interaction Types and the Circumplex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30) Clake, J. P.(1984). *The Family Types and Schizophrenics, Neurotics and Norma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31) Galvin, K. M. & Brommel, B. J.(1986). *Family Communication - Cohesion and Change (2nd ed.)*. Illinois : Scott, Foresman and Company.
 - 32) Miller, I. W., Epstein, N. B., Bishop, D. S. & Keitner, G. I.(1985). The McMaste Family Assessment Device :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 345-356.
 - 33) Olson, D. H., Portner, J., Lavee, Y.(1985).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 University of Minnesota.
 - 34)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H.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I :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 *Family Process* 18, 3-28.
 - 35)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VI :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